

제31강 서사문쓰기

1. 서사문이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글은 자기가 듣고, 보고, 생각한 것,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쓰는 글이다. 이것은 일기로, 생활문으로, 감상글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된다. 따라서 서사문이란 모든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글로 써보라고 하면 십중팔구 “재미있는 일 없었는데요” “어제랑 똑같은데요” 등등 쓸거리가 없다는 하소연에 부딪치게 된다. 사실 도시의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밥먹고 학교에 가고 오후에 정해진 대로 몇 군데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밥먹고 공부하고 잠을 자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글감을 찾으라니 쓸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이런 형편이니 요즘은 오히려 서사문 쓰기를 더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루하루가 모두 다른 법이다.

글쓰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활동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또한 글을 쓰다보면 어떤 일을 두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건의 시작과 과정, 해결의 방법도 찾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넓고 깊어질 것이다.

2. 서사문 쓰기

1) 글감잡기

쓸거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쓸거리가 있어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쓰고 싶은 글이라야 참된 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일에서 글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글감이란 ‘글의 재료’라는 뜻으로 쓸거리를 말한다.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글감이 될 수 있지만, 특이한 체험이나 깊은 감명을 받은 일, 가장 괴로웠던 일이나 모처럼 겪은 일 등이 생활문의 좋은 글감이다. 이를 위해서 항상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글감잡기의 예>

-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글감: 가족이 겪은 이야기, 집안일 돕기, 심부름,
- 학교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글감: 친구와 한 일,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겪은 일, 소풍, 운동회, 시험본 일, 상받던 일 등
- 길거리나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글감: 놀이터에서 친구랑 논일, 시장에 다녀온 일, 학교나 학원에 가다 보거나 들은 일 등

예) 불쌍한 족제비

1학년 황재희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길래 한 번 가봤다. 근데 거기에! 족제비새끼(어떤 언니가 족제비라고 했다)가 죽어있었다. 몸을 옆으로 하고 팔다리를 쭉 뻗고 있었다. 정말 불쌍했다. 족제비를 살려주고 싶었다. 그 때 어떤 애가 족제비를 손으로 집었다. 어떻게 족제비를 집을까? 어쨌든 참 회한한 일이다.

2)서사문의 구성요소

서사문을 쓰는데 빠져서 안될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찌 되었나”의 여섯 가지이다. 신문기사에서 육하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서사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었던 일을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하다, 이 여섯 가지만 빠뜨리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해도 아이들의 글은 글의 기본은 갖추게 된다.

3)어떻게 쓰게 할까

글감이 정해지면 그 때의 일을 자세히 떠올려보도록 한다. 그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당시의 분위기와 나누었던 대화, 느낌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려 보도록 한다.

-일의 순서를 밝혀쓴다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의 하나는 느낌 쓰기이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써 놓고 반드시 끝에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한다거나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거나 “참 재미있었다”는 말이 반드시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사문 쓰기에서는 생각이나 느낌보다 사실을 잘 밝혀 쓰는 것이 좋은 글 쓰기의 출발점이 된다.

예)개미와 애벌레

3학년 강새아

오늘 아파트 화단에 나 있는 식물 관찰을 할 때였다. 맨 처음 뱀딸기를 보고, 민들레와 토끼풀도 관찰한 후 더 둘러보다가 애벌레와 개미가 싸우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애벌레를 응원했다. 개미들은 애벌레의 등위로 올라가서 귀찮게 했다 애벌레는 개미가 싫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내가 애벌레들을 도와주려고 개미들에게 침도 뱉어주었다. 나는 개미들이 너무 싫었다. 개미들은 착한 줄 알았는데 너무 못됐다.

집에 갈 시간이 되어 돌아왔지만 아직도 애벌레와 개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내일 보면 꼭 살아 있을거라 생각한다.

-자기 입말로,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쓴다

예)탈출하고 싶은 시험

성창훈 2학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드디어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볼려고 했다. 확 나가버리고 싶었다.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15분만에 다 해버렸다.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엄마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다. 집에서 풀은 문제보다 시험문제가 더 쉬웠다. 근데 왜 시험을 볼까? 너무 화가 난다. 제발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없어져라. 시험아.

시험을 앞두고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과 시험을 마치고 난 후의 하소연까지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글을 읽는 사람도 아이와 같이 시험을 보며 걱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라는 표현은 아이가 평소에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다. 아이들이 가끔 글에서는 이렇게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글은 그들이 평소에 쓰는 생생한 말이라야 더욱 실감이 나고 정직한 글이 되는 법이다.

-일어난 사실을 자세히 밝혀 쓴다

예)천태산에 다녀온 일

3학년 조아라

일요일에 천태산을 갔다. 은행나무를 보았다. 천년을 살은 은행나무다. 대구지하철 사고가 나기 전에 은행나무가 음메를 크게 열두 번이나 했다고 한다. 진주 폭포에 갔을 때가 참 재미있었다.

식구들과 산에 가서 안내원에게 껍이나 인상깊은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다. 그러나 누구랑 같이 갔는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안내판을 보고 알았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없다. 진주폭포에 갔던 일은 왜 재미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글이 되어버렸다. 글을 쓴 사람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때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자세히 써야할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글은 친구들에게 읽어주도록 하면 아주 좋다. 스스로 읽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하는 친구들 때문에 자세히 말로 설명하게 된다. 그 때 그것을 덧붙여 쓰도록 하면 된다.

아이들이 자세히 쓰지 않는 이유는 자신은 이해하고 있는 일을 글로 나타내기 때문에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서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서처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세히 쓰기 지도로 이어간다면 짧은 글만을 쓰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아이에게는 “왜, 어떻게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말하도록 하고 이어서 글로 나타내도록 지도한다.

-대화글을 넣어 실감나게 쓴다

자세히 밝혀 쓰는 것에 이어 실감나게 쓰기 위해서는 대화글을 쓰도록 하면 좋다.

사람들과 주고 받은 말을 그대로 살려서 쓰면 좋다. 대화글을 쓰면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때의 분위기나 말한 사람의 성격, 버릇, 취미 같은 것들을 글만 보아도 알 수 있게 된다.

글감잡기를 하거나 개요를 짤 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말한 것을 그대로 쓰도록 하면 된다. 이 때 너무 시시콜콜하게 모든 말을 다 적으면 오히려 글이 밋밋하고 재미없어진다. 꼭 써야 할 말을 필요에 맞게 써야 한다.

-솔직하고 의미있는 글을 쓴다

서사문이 겪은 일을 쓰는 글이지만 그 글에는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글을 쓴 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글의 주제로 드러나고 그 주제가 우리가 사는 삶의 보편적 가치와 이어질 때 더욱 의미있는 글쓰기가 될 것이다.

예)약속을 지킴시다

2학년 오세훈

저녁마다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랑 줄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나가보니 나만 나왔다. 친구들이 안와서 처음에는 ‘조금 있다 오겠지’ ‘금방 오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계속 안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줄넘기를 했다. 기다리기가 지루했다.

이백 번쯤 하고 났을 때 ‘이제는 오겠지’ 했는데도 안오는 것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 학교에서 왜 늦게 왔는지 물어봐야겠다. 그 때 나는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참 지루하다는 것도 알았다.

4)서사문의 개요짜기

서사문은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음과 가운데, 끝으로 이어진다. 이야기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설처럼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순서를 갖추면 더욱 좋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의 순서대로 써나가도록 하면서 상황에 따라 지도하면 좋겠다.

개요를 짤 때에는 보통 세 부분이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3단계 구성

- ①처음부분-주로 일이 생긴 이유나 내용을 쓴다.
- ②가운데부분-일의 중심내용이 펼쳐지는 과정을 쓴다.
- ③끝-일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쓴다.

-4단계 구성

- ①발단-일이 생긴 이유나 시작되는 내용
- ②전개-일이 펼쳐지는 과정
- ③절정-긴장이나 감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내용
- ④결말-일이 마무리 되는 내용

5) 글의 첫머리 쓰기

글의 첫머리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머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때와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어제 점심시간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교문 앞에는 커다란 빌딩이 자리잡고 있었다.

2. 대사나 시늉말을 제시하는 경우

-“우찬아 너 뭐해”

-“덜커덩”

3. 생각이나 회상으로 시작하는 경우

-나는 누가 무래도 효자야!

-즐거웠던 지난 봄소풍 때의 일이다.

4. 설명이나 주장으로 시작하는 경우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5. 일이 처음 시작된 모습을 그리는 경우

-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6.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경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7. 인물이나 환경을 소개하는 경우

-철수는 키가 작고 통통한 내 친구이다

8. 인용문으로 시작하는 경우

-설상가상이라더니. 오늘은 나에게 그 말이 딱 어울리는 하루였다.

6) 겪어보고 쓰게 하자

하루가 다 가는데도 쓸거리가 없다고 도리질하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쓸거리를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다. 선생님이 옷이나 공기같은 놀잇감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도 좋고 아니면 놀이터에 나가 실컷 놀게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 땡’같은 놀이를 하고 나서 쓸 수도 있다. 아니면 집에서 샌드위치나 핫케익을 만든다든지 하여 아이들에게 쓸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방금 전에 겪은 일이라 아이들은 생생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삶 속에서 자기 주변의 일이나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글인 사생글 쓰기를 해보면 더욱 좋다.

아이들이 실제의 삶에서 우러난 생생한 느낌과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알고,또 그것을 글로 쓰는 즐거움을 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